

# 세계의 중심 이동과 동서 철학의 균형

박이문 포스텍 · 시몬스대학교 명예교수

3세기 전부터 근대 과학 기술 문명이 유럽에서 동북아시아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흐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명의 흐름은 서양의 영향이 동북아시아로 미치고 있음을 뜻하고, 문명의 중심이 서양에 있음을 뜻한다. 문명의 이러한 판도는 유럽인들에 의한 근대적 의미의 과학적 지식 양식과 기술 능력의 개발에서 찾을 수 있다. 얇은 곧 힘이며, 서양이 개발한 과학이라는 얇은 양식은 가장 큰 실천적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양의 과학 기술 문명과 접촉으로 잠을 깬 동북아시아는 타의적으로나 자의적으로 지난 두 세기, 아니면 한 세기에 걸쳐 서양의 과학 기술 문명을 흡수하는데 열중했고, 21세기 초반인 오늘날 우리 모두는 서구의 선진국들과 상대해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점에서 세계 문명의 중심은 역전되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역전되어 가는 문명의 흐름에 대해서 서양은 자기 연민과 허탈감에, 동양은 자화자찬과 오만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생각과 태도는 모두 잘못이다. 지구가 하나의 세계라면 모두가 가까이 살 수밖에 없고, 또한 인류는 환경 오염, 핵전쟁,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기아 등 문명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문명사적 위기의 원인은 서양이 발명하고 이제는 동양이 기꺼이 추종한 과학 기술의 필연적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학 기술 문명을 거부하고, 그런 문명의 틀을 만든 서양 문명을 거부하고 동양의 전통적 문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오늘날 과학적 사유와 힘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어떤 인간 사회, 어떤 개인도 생존할 수 없다. 문제는 과학이 아니라 과학의 잘못된 활용이며 그 잘못된 서양의 잘못된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있다.

오늘날의 문명사적 문제는 서양의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동양의 생태친화적 세계관으로 대체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때 해결될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동/서 문명의 우/열, 과학의 내재적 선/악을 따지는데 있지 않다. 우리는 인류 문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소송적이 아니라 대응적 관점, 즉 동양인/서양인의 구별을 초월한 인류의 관점에서 위기에 처한 문명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동서문명, 문명의 이동, 과학 기술 문명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서양의 우월성과 앞으로 동양의 힘의 우월성 가능성, 문명과 그 배경의 세계관, 동양의 생태주의적 세계관 속에 서양의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의 포용의 필요성, 동서 문명의 갈등을 넘는 인류 문명을 위한 조화와 균형 및 협동의 필요성,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인류의 공존을 위한 협동 체제 강구의 시대적 요청

## I. 서양 문명이 지닌 과학적 사유의 토대

애초에 근대 문명의 중심은 유럽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문명의 중심이 빠른 속도로 동아시아 쪽으로 이동 중이다. 세계라는 낱말을 지리적인 개념이 아

나라 사회적 및 정치적인 개념으로서, 특정한 지역과 시대의 모든 인간 집단의 삶의 방식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각각의 세계는 반드시 하나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가치를 축으로 조직되고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삶의 우선적 조건은 경제적 안정이며, 모든 이들의 경제적 조건을 다같이 충족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일정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부의 획득을 위한 경쟁, 투쟁, 승자와 패자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인간 집단의 삶의 총체적 양식을 문명이라 명명할 수 있다면 문명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운동의 진화 혹은 퇴보 과정이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이 문명이라는 운동도 그것의 힘의 강/약 혹은 우/열같이 상대적이다. 그러나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물질의 양적 크기에 상대적인 것과는 달리 문명의 인력의 크기는 정신의 질적 크기에 상대적이며, 이 때 ‘정신(esprit)’이란 냉철한 분석적 지성, 뜨거운 창조적 상상력, 지치지 않는 파우스트적 탐구정신을 지칭한다.

서양에는 기원전 6세기에 이미 이오니아 반도의 탈레스, 아테네 시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피타고라스 같은 사유가들과 사포, 소포클레스, 펜다로스 같은 시인들 및 극작가가 있었고, 문예부흥시대에는 다빈치,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같은 과학적 사유가, 셰익스피어, 라브레 같은 작가, 그리고 그 후 17세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데카르트, 파스칼, 칸트, 헤겔, 마르크스, 니체, 다윈, 아인슈타인 그리고 엇그제 작고한 IT의 귀재 잡스가 존재했다. 근대 이후 수백, 수천 명의 유럽인들은 수만 가지 기계를 발명했고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수만 가지 새로운 과학적, 공학적 이론, 기계들을 계속 발명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사상가들이나 발명가들이 모든 분야에서 줄곧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과학 기술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산업 혁명을 일으켰고,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함으로써 사람들의 생활은 놀라운 속도로 개선되었으며, 사회는 여러 차원에서 빠른 속도의 진보를 성취했다. 이러한 과학적 지식이 보급되고 기술이 발달했던 유럽의 영-독-불들과 그 외의 작은 국가들은 인도양과 대서양을 건너 그 여세로 유럽 밖의 거의 모든 지역을 식민지화하는데 성공했고, 그 식민지들을 지배하고 착취하여 더 부강한 국가를 만들 수 있었다.

이에 비해서 동양에서는 21세기인 오늘날까지도 수적으로 서양보다 더 많은 이들이 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적 탐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세계적이고 혁명적인 의미를 갖는 과학적 발견이나 학문적 이론 및 예술적 작품을 창조한 사람의 수가 미미할 정도로 적다. 위와 같이 서양에서 발견, 발명, 창조된 주옥 같은 정신적 창조물로서의 문명과 문화는 유럽인들이 독자적으로 성취한 창조적 업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랍고 감탄과 찬사의 대상이 된다. 유럽 문명과 문화의 위와 같은 두드러진 특징은 유럽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알게 모르게 갖고 있던 합리적 정신, 과학이라는 인식을 잘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1492년 콜럼버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하기까지, 유럽인들이나 동북아시아 인들은 남북 미대륙과 그곳의 원주민들의 존재를 몰랐으며 동아시아인들이나 유럽인들은 서로의 존재를 몰랐고, 지구를 둥근 것이 아니라 끝없는 평면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13세기 마르코폴로가 중국을 방문해 17년간 원나라 황실에서 지내며 동아시아를 알고 그곳에서의 견문기를 낼 때까지, 서양은 서양대로 그리고 동양은 동양대로 타자의 문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지리적으로는 유라시아 반도에 붙은 갑(岬)에 지나지 않은 유럽이 17세기부터 자기 이외의 거의 모든 지구를 식민지 아니면 반식민지로 삼고 부를 창출하며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서술한 유럽의 독창적이고 뛰어난 정신과,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에 의한 것임이 틀림 없다. 유럽인들은 그들의 이러한 역사와 정신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그들의 문명은 험악한 자연을 개척하고 다른 문명권을 정복하여 부를 창출하고 약탈하며, 백인 이외의 인류에게는 예속, 지배, 약탈, 착취라는 ‘악’을 범했던 것을 도덕적 차원에서는 용서하기 어렵지만, 그들이 그만큼의 지식, 기술, 힘, 능력, 의지, 모험심, 개척정신을 갖고 있었던 점에서 ‘우월’했던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럽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합리주의적 문명의 재발굴을 의미하는 문예부흥을 거쳐 과학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교통이 급속도로 발달되었으며, 18세기에 영국,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과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평등과 자유에의 열망이 확산되었다. 19세기에는 과학적 이론과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정치, 경제, 행정, 기술, 군사, 철학 등 여러 차원에서 비상한 속도로 발전한 유럽의 영, 불, 독 3국을 비롯한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화란 등의 근대화한 국

가들이 아프리카 대륙과 인도 대륙을 정복하여 식민지화하고 중국 및 남태평양 여러 지역들을 대포와 아편으로 식민지 아니면 반식민지화 했다. 이로써 제1차 세계대전 말까지는 서양의 대명사가 된 유럽 문명권이 세계 전체의 주인으로서 중심 자리를 차지했다. 이러한 추세는 21세기인 오늘날까지도 — IT와 그 밖의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기적적인 기술에 의해서 —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적어도 지난 3세기에 걸쳐 세계의 중심은 서양에 있어 왔고 동양은 변두리에 밀려나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세계 문명의 위와 같은 판도는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일만 년에 가까운 인류 문화사를 통해서 크거나 작고, 경이롭게 발전하거나 정체된 수많은 문명들이 존재해 왔지만, 21세기 오늘날의 세계 문명을 개괄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편의상 그 모든 문명들은 큰 틀에서 유럽-미국을 축으로 한 서양 문명과 인도-중국-한국-일본을 축으로 한 동양 문명이라는 두 범주로 양분해서 서술하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산업혁명 이후 세계사의 큰 그림은 서양에 의한 동양의 발견, 일방적인 굴복, 복종, 종속, 자원의 약탈과 그런 과정을 통한 동양 문화의 서양 중심적인 문화변용(acculturation)의 과정으로 그려질 수 있다. 지난 3세기 동안 서양은 정치적으로나 과학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세계의 중심이었고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그 밖의 모든 지역은 주변적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범주에 속하는 국가나 민족으로는 2천 년 이상 스스로를 ‘지구의 중심국’이라고 믿어 왔던 중국, 세계 인구의 1/4을 차지하는 중국인들도 포함된다. 한때는 영어와 불어가, 오늘날에는 영어가 실질적 ‘세계어’로 사용되고 있다.

## II. 동양과 서양의 근대 문명사에 대한 모순된 태도

세계의 중심이 유럽-미국에 있었고, 그러한 서양 문명은 우리에게서는 거부, 저항, 투쟁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선망, 질투, 수용, 학습, 모방 그리고 극복의 대상이기도 했다. 유럽-서양은 세계의 중심에 이르기 위한 행동과 평가의 잣대이거나, 선망과 참고의 대상인 동시에 거부와 증오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배우고 닦고자 하는 모델인 동시에 우리를 그것과 차별화함으로써 우리의 자주성을 확인하는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비서양 문명권은 서양의 식민지 정책에 따른 서양식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를 때로는 타의적으로 서양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남보다 일찍 서양 문화에 눈을 뜬 많은 동양인들은 자진해서 스스로 서양 교육을 받아 하루 바빠 정신적으로나 구체적 행동에 있어서나 서양화를 하지 않고서는 개화, 즉 근대화를 이룰 수 없고 개명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프리카의 아랍 국가들이나 많은 흑인 부족들, 그 밖의 식민지에서는 물론 터키나 시리아, 독일이나 영국, 러시아나 폴란드 등에서 귀족이나 부유층, 작가나 지식인, 고급관리나 사업가 등은 물론 중동 국가들의 귀족들, 재벌들도 일상생활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것이 몇의 척도가 되기도 했다. 17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 프랑스가 유럽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발달하고, 세련되었으며 멋있는 나라로 인식되었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야기가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도 해당된다.

동양의 서양화는 서양에 의해서 총칼로 강요된 것이기도 하지만, 피식민지의 교육을 받은 선각자들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추진된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서양적 과학 지식과 기술, 서양적 교육 내용과 방법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서양적 사고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의 도입이 자신들의 사회와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의 필수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사실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식민지도 있었겠지만,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동양의 모든 나라들을 비롯한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의 서양화는 서양 문화권에 의해서 강요된 것만이 아니라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 국가 당사자들의 자율적 판단과 요청에 의해 진행될 때도 있었는데 당시의 피식민지 국가들의 이와 같은 인식과 행동의 결단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고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한 인식, 정책, 행동, 결정만이 올바른 세계와 현실인식이며, 자신들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다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길이며, 서양의 식민지로서 종속된 것에서 자기 스스로 독립하여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끈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아 유교 문화권에 있는 일본은 이미 백여 년 전에 이러한 선택을 함

으로써 재빠르게 근대화, 즉 서구화하는데 성공하고 일찍이 서구 강대국 속에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 패권을 잡고, 36년간 한국을 강점하고, 패전 후에도 6·25전쟁으로 초토화된 한국을 딛고 서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산업화에 성공한 ‘세 마리의 작은 용들’ 가운데 대표적인 나라로서 6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근대화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한 성공의 결과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한국은 60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에서 GDP 11위의 경제적 부국이 되어 이제 세계 최선진국의 바로 문턱에 서 있게 됐다. 또한 중국은 30여 년 전부터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면에서는 급진적 시장주의 체제로 전환하여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과실을 거둘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이 최근에 맞닥뜨린 심각한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강국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서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자타가 공인했던 동아시아의 비약으로 서양과 동양의 힘의 관계가 점차 역전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즉, 서양의 식민지나 반식민지였던 아시아 문명권의 위와 같은 기적적 발전은 지난 세기 초부터 동서 간의 힘의 역학 관계를 변화시켜서, 최근에는 세계의 중심이 서양이 아닌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징조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동양 문명권의 상대적 상승과 강화는 곧 서양 문명권의 상대적 하강과 쇠퇴를 함의하며, 세계 문명의 중심이 서양 문명권에서 동양 문명권으로 교체될 가능성을 함축한다. 그것은 세계의 중심이 서유럽-미국에서 동북아의 중국-한국-일본으로의 이동을 뜻하고, 동양인에게는 몇 세기 동안 짓밟혔던 자존심의 회복이라는 긍정적 현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반면, 서양인에게는 우월성 상실과 자존심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다.

20세기 초반부터 서양의 많은 학자나 지식인들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동서 문명들 간 관계의 역전에 수반되는 불안감, 모욕감, 자존심 상실, 반성, 회한, 경제심, 자기연민 등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근래 동서 문명 간의 변화된 흐름을 생각할 때 필자의 머리 속에는 다음과 같은 서양 저자들의 이름과 그들 저서의 제목들이 떠오른다. 오스발드 슈팽글러와 그의 저서 『서양의 몰락(Der Untergang des Abendlandes)』(1922), 앙리 마시스와 그

의 저서 『서양과 그 운명(L'Occident et son destin)』(1956), 폴 케네디와 그의 책 『강대국의 부상과 몰락(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1989), 사무엘 헌팅턴과 그의 책 『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1996), 그리고 패트릭 뷰캐넌과 그의 저서 『서구의 죽음(The Death of the West)』(2002) 등은 세계 문명사의 변동에 대한 서양의 뼈아픈 심리적 충격을 반영하고 있는 대표적 저서들이다.

위의 모든 저서들에서는 힘의 균형 면에 있어서 급속도로 상승하는 비-서구 국가들 특히 일본, 한국, 중국 등 동북아시아의 유교 문화권 국가들의 경제적, 교육적 발전과 정치적 및 군사적 세력의 상승에 대한 서양 국가들의 상대적인 위축과 퇴행적 흐름, 서양적 입장에서의 경각심, 불안, 상처 받은 자존심, 생존의 위협에 대한 반응의 부정적 표출, 그리고 자기 방어적 태도가 보인다. 이에 반해서 요즘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세계 중심의 이동’, ‘서양의 권력이동’, ‘서양의 위기’를 비롯한 서양의 ‘파산’, ‘종말’ 등과 같은 표현은 위와 같은 현상에 대한 동양의 부상 및 긍정적 인식의 대표적 표현들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위와 같은 서양 학자들과 그들의 저서들에 앞서 내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서양 사람의 이름은 20세기 프랑스 시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정치와 문명 비평가인 폴 발레리(Paul Valéry)이며, 그의 주옥 같은 에세이의 제목인 『정신의 위기(La crise de l'esprit)』(1919)를 비롯해서 『유럽인(L'Européen)』(1924), 『역사관(Discours sur l'Histoire)』(1932) 등과 같은 것들이다. 그는 위와 같은 글들을 통해서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서양의 문명을 그 밖의 모든 지역과 대조하면서 ‘지구의 진주’ 또는 ‘방대한 신체의 두뇌’에 비유하여 서양을 규정하는 것은 그것의 물리적 크기나 성질이 아니라 유럽적 ‘정신(esprit)’의 특수성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 정신의 특수성을 ‘능동적 욕망’, ‘뜨겁지만 냉정한 호기심’, ‘상상력과 논리적 정확성에 상반되는 속성의 행복한 혼합’ 등으로 규정하고, 그럼으로써 “힘의 차원에서나 지식의 차원에서 유럽은 오늘날까지도 지구상에 있는 그 외의 모든 지역을 합한 것보다 더 무게가 나간다”고 서양 문명의 위대성을 자신만만하게 선언했다. 그러나 그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그전까지 서양 문명이 독점적으로 누리던 힘의 비중과 특권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경고하였다. 상대적으로 동양 문명권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는 역사적 흐름을 두려워하고 경고하며, 쇠약해가는 자신들에 대해 일종의 자기 연민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앞서

언급한 서양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발레리의 논문들이 각별히 눈에 띄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다른 저서들과는 달리 서구 문명의 특별한 정신적 우수성의 발견과 그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서술, 그리고 동서 문명 간의 힘의 역전의 원인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레리가 경고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지리적으로나 인구의 수적 관점에서 방대한 동양 문명권 세력의 급속한 팽창과 서양의 근대 과학 기술 문명의 모방적 도입으로 성공한 빠른 근대화의 결과이다. 그 동안 근대 동서 문명 간에 존재했던 우월성의 차이와 같은 결과는 유라시아 대륙의 아주 작은 반도에 사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수의 유럽인이 몇천 년에 걸쳐서 창조한 정신적, 지적 및 기술적 정수 때문이었는데, 발레리는 그것을 “어리석고도 멍청하게” 방대하게 넓은 동북아시아 전 지역의 수십 억이나 되는 아시아인에게 바로 전수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기가 소속된 유럽 문명의 우월성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 때문에 가장 지적인 시인이며,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상가로 알려진 철학적 지식인인 그가 20세기 초반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학술, 역사적 상황을 보고 쓴 다음과 같은 글들을 대할 때, 나는 그의 도덕성에 회의를 갖게 되고 그가 이성을 잃은 인종적, 문화적 쇼비니스트로 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과 함께 당혹감과 안타까움, 놀라움과 연민까지 느낀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있던 신비스러운 덕목들을 다른 이의 저울대에 전달했다. 우리는 멍청하게도 우리의 힘을 문명의 정예인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그것을 유럽 문명권 밖에 있는 대중들에게 주었던 것이다. 자신의 힘, 즉 권력의 수단들을 그들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들보다 월등하게 넓은 땅에서 살고 수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인 대중들에게 힘, 즉 권력을 전수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비하를 준비한 것은 곧 유럽 자신이다. 그럼으로써 예술, 공학, 전쟁 혹은 평화의 과학적 방법, 과학적 지식의 응용이라는 관점에서 지구상의 지역들 간에 존재했던 불평등, 즉 그것은 유럽의 우위의 바탕이 되었던 것인데, 그러한 불평등이 사라짐으로써 지구상에 있는 여타의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유럽의 우위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다(Valéry, [1919] 1957: 988, 강조는 필자의 것임)

발레리의 서양 문명과, 서양인의 특징에 대한 서술과 지난 3세기에 걸쳐서 진행된 동서 문명사에 대한 서술과 설명은 모두 정확하고 정곡을 찌른다. 그리고 동서 문명 간의 관계에 대해서 책을 썼던 여러 서양인이나 발레리에게서 드러나는 심리적 공포, 고통, 분노, 자기연민 등은 인간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와 입장으로는 서양만이 아니라 동양과 함께 대처해야 할 인류 공동체의 생사가 달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 문제 해결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대처해야 한다. 오늘의 문명사적 문제는 특정한 국가, 지역, 혹은 서양, 동양 간의 우월과 열등, 패자와 승자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고 인류가 공동으로 처한 생태계 보존, 환경 보호, 인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문명이 한 특정한 지역과 시대에 있어서 이상적인 삶을 살고자 구축한 사회, 기술, 정치, 산업, 군사, 문화, 도덕 등 모든 차원에서 발견되는 인간 집단의 보편적, 조직적 장치의 총칭이라면, 한 문명을 평가하는 잣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기능을 얼마나 잘 발휘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은 그 사회의 객관적인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기술적 조건에 비추어서만 결정될 수 있다.

모든 문명이 필연적으로 진화하고 진보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문명이 경쟁적인 긴장 관계에 놓여 있을 때 문명의 중심과 방향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문명 쪽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 반대 쪽은 점차적으로 그 힘을 상실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이치다. 지구는 하나의 구(球)로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문명들 역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하고 있다. 즉, 세계 문명으로 급변해가고 있는 오늘날의 문명은 지역, 인종을 초월한 명실 공히 전 지구적이고 전 인류적인 문명, 생존과 번영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인류 보편적 문명을 지향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류는 싫건 좋건 인류 모두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인구 폭발,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류의 종말이라는 생각하기 힘든 무서운 가능성과 대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문명의 개념과 그 의미, 동서 문명에 대한 각각의 상대적 평가나 미래 문명의 그림과 기획도 완전히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세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세계 문명사에 대한 인식에 공감한

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 이동”을 통해 잘못된 인간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세계관과 공격적 가치관, 과학적 인식을 절대시하는 과학지상주의를 넘어 자연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생태중심적 세계관과 도덕관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전지구적이고 전인류적인 운동을 제안한다.

분명한 것은 문명의 중심, 즉 세계의 중심이 정반대 방향으로 역행하기 시작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그 이동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징조가 유럽 자체 내부에서 의식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경종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계의 중심이 유럽과 유럽의 연장인 미국에서 중국-일본-한국을 축으로 한 아시아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한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이 발레리를 비롯한 서양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근대 유럽인의 놀라운 정신적, 물질적, 정치사회적 발전에 불가피하게 따라온 과학 기술 문명과 경이로운 정신 문명의 필연적인 결과인 만큼 그러한 결과를 후회하고, 원망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리고 만일 발레리가 서양 문명을 고귀한 문명의 보배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면, 그러한 문명을 배운 동양이 서양을 추월하여 보다 더 부강한 문명을 이룩한다고 하더라도, 동양인에게 자신들의 지식과 사유를 전수한 것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후회하기보다는 오히려 현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축하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전수한 과학, 서양 문명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인류가 문명 생활을 구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동양인은 서양인으로부터 배워서 뒤늦게 근대화에 성공하여 부강하게 된 것을 자축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서양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동양의 성공은 서양이 창조한 과학과 사유 방식을 본받음으로써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문명사적 상황에서 동양이나 서양에게 다같이 중요한 것은 어느 문명이 더 우월하나, 어느 문명이 더 중요하나 등 문명 간의 우월을 따지고 등급을 매기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인류 문명이 동서를 초월해서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인 인구 폭발, 자연 자원의 고갈, 핵전쟁의 위험성,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등 인류의 종말과 생사가 달린 문명사적 위기 극복 방법을 강구하는 인류 공동

의 작업이다. 이 작업은 두 문명의 철학적 뿌리에 관한 고찰을 전제하며, 그 뿌리는 동과 서 두 문명에 아득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심층 의식에 깔려 있던 세계관의 발굴과 평가를 의미한다.

### III.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달은 모든 영역에서, 바로 이 순간에도 가속화되고 있다. 과학의 힘은 거시적으로는 천문학이 다루는 우주와 미시적으로는 양자역학이 다루는 미립자의 비밀을 하루가 다르게 새로이 밝혀내고 있다. 오늘날 인간의 삶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단 하루라도 완전히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리고 과학적 발달은 인류에게 거의 기적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과학적 지식과 기술은 자연 현상에 관한 실증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과학적 사유는 인간이 진화하기 시작했던 그 시간으로부터 지금까지를 아우르는 거대한 경험의 집적물이라 할 수 있다.

이오니아 반도의 그리스에 살던 몇몇 인간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에 살던 고대인들은 일종의 물활론적 자연관을 갖고 있어서 모든 존재는 영혼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경우처럼 희로애락을 경험하는 생물체로 인식해 왔다. 근대적 의미의 과학적 인식은 기원전 6세기 이오니아 반도의 한 철학자가 모든 것은 물질로 환원된다고 선언했을 때 비로소 싹이 텄고, 16세기 천문학에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케플러가 혁명을 일으키고, 18세기 물리학에서 뉴턴이 만유인력 설을 주장하고, 19세기 다윈의 진화론 등 거대 이론들이 발견되면서 과학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없는 인간 사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인간 삶의 만사에 과학이 직접·간접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이 없으면서도 반과학적 정서가 인간의 마음 속에는 깊이 그리고 넓게 퍼져 있다. 이성적이기에 앞서 감성적인 동물로서의 인간 사회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오늘날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없는 인간 사회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생태계 파괴를 비롯한 핵전쟁 같은 현대 문명의 지구적 위기의 핵심 원

인을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달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학적 사고와 기술 위에 구축된 근대 문명을 통째로 버려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현대 기술 문명, 즉 서구적 문명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면 그것은 과학 지식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근시안적 관점에서 잘못된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과학을 잘못 사용해 왔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과학적 지식은 자크 모노의 정의에 따르면 “자연은 객관적인 것이고 참다운 지식은 논리와 경험을 조직적으로 맞춤으로서 얻어진다”는 공리에 근거한 지식이다(Monod, 1971: 165). 과학적 지식은 그 자체만으로는 좋은 것도 아니며 나쁜 것도 아니다.

과학의 부정적, 파괴적 기능의 원천은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잘못된 목적과 세계와 인간에 관한 어리석은 인식에 있다. 이러한 인식의 착오는 매사의 문제를 원시안(遠視眼)적이 아니라 근시안(近視眼)적으로 파악해 왔던 데 있으며 앞으로라도 그럴 것이다. 오늘날 문명과 인류의 종말을 위협하는 것들, 가령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핵무기의 확산 등 문명과 인류의 존속과 참다운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의 근본적인 열쇠는 또 다른 과학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의 참다운 세계 인식과 슬기로운 도덕적 행위 및 실천에 달려 있다.

서양 문명의 위대한 발견이자 창조물인 이성적 사고력과 과학적 기술의 문제는 그것이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포로가 된 인간이 근시안적 지평에 갇혀서 원시적인 도덕적 통찰력을 갖추지 못하고 살아온 데 있다. 그렇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처럼 과학을 맹목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맥에서 동양 문명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부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21세기의 동양 문명은 서양 문명의 창조물인 귀중한 지식과 사유 양식으로서의 과학과 기술을 거의 세계적 수준까지 높이고, 경제적으로도 서양의 강대국 대열에 함께 설 수 있게 되었지만, 서양 문명과는 달리 인간중심적이 아니라 자연중심적 세계관과 도덕적 인생관, 미학적 감수성, 공격적이 아니라 타협적 태도, 외향적이 아니라 내향적 심성을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서양 문명의 핵심이 외향적이고 기하학적이며, 이성적이고, 공격적이고, 차디

차며 배타적이고, 인간중심적이라면, 동양 문명의 핵심은 내면적이고 심미적이며, 감성적이고 따뜻하며 생태친화적이다. 서양 문명의 골격이 과학적이라면, 동양 문명의 핵심은 인문학적이다. 그리고 최근 인문학의 위기와 학문의 통합을 두고 언급할 때 흔히 전제되어 있는 바와는 달리 그것들 간의 통합은 과학에 의한 인문학의 통합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인문학에 의한 과학의 통합만이 가능하다. 언뜻 생각하는 바와는 달리 인문학이 과학의 일부가 될 수는 없지만 과학이 인문학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철학, 역사, 문학 등, 인식 양식으로서의 학문들을 인문학으로 분류하고 과학과 대립시키는 근거가 인문학이 인간의 주관적 사유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과학도 일종의 인문학의 일부이다. 왜냐하면 학문은 어떤 객관적 대상의 발견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요성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고안하고 구성해낸 관념적, 도구적 제품이기 때문이다. 철학이나 문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식 양식인 과학도 주어진 대상의 객관적 발견이나 집합이 아니라 인간이 주관으로 구성된 관념적 작품이다.

인문학과 과학이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를 보완하면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유기적이고 전일적인 인식 양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인문학과 과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통합될 수 있고, 통합되어야 한다면,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 간의 공존, 화합 그리고 통합은 가능하다. 이러한 지평과 정신으로 자연과 인간, 생태계 보존과 자연개발, 새로운 문화의 탄생과 새로운 문명이 창조된다면 보다 신선한 자연과 인간의 삶의 새로운 개혁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문명의 틀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인간중심적 근대 과학 기술 문명도 아니며 동양의 도덕적, 즉 인문적 덕목만 중심 가치로 삼는 동양의 전통적 문명도 아닐 것이며, 반드시 아니어야 한다. 그것은 두 전통적 문명사에서 상대방의 부정적 측면을 서로의 반면교사로 삼아 인간화된 과학 기술 문명인 동시에, 과학적 사유로 보완된 인문 정신 문명이 하나의 유기적인 통합 형태를 갖춘 “동지의 인류 문명”으로 새로이 탄생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세계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동은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이동이며, 그 이동은 인간중심적 세계관에서 생태중심적 세계관으로의 이동이며 ‘사필귀정’의 우주의 원리에 따른 것이며, 그것은 앞으로의 “동지의 문명”

이라는 자연과 인간이 융합된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양은 이러한 ‘세계의 중심 이동’을 서양에 맞선 동양의 승리나 우월성으로 인식하고 좋아하는 ‘유치함’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반대로 서양은 자신이 지금까지의 문명사에 기여한 공적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할 것이지, 가령 시인 발레리처럼 자신이 갖고 있던 문명사적 우위를 상실한 데 대한 병적인 자기 연민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문명은 서양의 오래된 전통의 산물인 인간중심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근대 과학적 자연 인식 양식과 동양의 오래된 전통의 산물인 생태중심적 자연관 간의 조화로운 세계관의 토대 위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투고일: 2011년 10월 17일 | 심사일: 2011년 11월 5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1월 8일

## 참고문헌

- Buchanan, Patrick. 2002. *The Death of the West: How Dying Populations and Immigrant Invasions Imperil Our Country and Civiliz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 Huntington, Samuel.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 Kennedy, Paul. 1989.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Economic Change and Military Conflict from 1500 to 2000*. New York: Vintage Books.
- Massis, Henri. 1956. *L'Occident et son destin: la crise de la civilization défense de l'occident, l'empire soviétique à la conquête du monde, comment l'Amérique a perdu pa paix: histoire de dix ans (1945-1955)*. Paris: Bernard Grasset.
- Monod, Jacques, tr. A. Wainhouse. 1971. *Chance and Necessity: An Essay on the Natural Philosophy of Modern Biology*. New York: Random House.
- Spengler, Oswald. 1922. *Der Untergang des Abendlandes*. Munchen: Beck.
- Valéry, Paul. 1957. *Oeuvres*, tome I, Paris: Gallimard.

---

**Abstract**

## Asian Philosophy as Paradigm of New Civilization

Ynhui Park POSTECH · Simmons College

---

For the past two or three centuries, the West has been the center of dominant power in the world, subsuming the rest of the world—such as the East and North Asia under its power. The role of advanced scientific knowledge and technology has been extremely crucial in this formation of hierarchical relationship. However, the center of the world has been visibly shifting from the West to the Far East during the recent decades, with the rise of East Asia as the new technological power.

As this turn of the situation signifies for East Asia the recovery of its lost pride, the West has received it with fear and fright as a threat to its power, interpreting it as a sign of the decline of, or even the death of, the Western civilization. However, both attitudes are unconstructive. Instead, both parties of the East and the West should be willing to help each other and be thankful for what one owes to the other.

Today, the overuse of technology has brought about problems such as ecological, environmental, so socio-political crises, all of which threaten the human civilization as a whole. It is now time for the West and the East to confront these global problems and cooperate together to resolve them, beyond competing for power as in the sense of superior-inferior relationship of the past civilization.

**Keywords |** East-West civilizations, the West as a superior civilization, the possibility of the East as the new superior civilization, thinking beyond the East-West conflict, the need for East-West cooperation